

히가시쿠조(東九條) 마당 - 지역으로부터의 도전

재일코리아인 3세의 시선으로

김광민 _ 히가시쿠조마당실행위원회 사무국장

1. 들어가며

본고 집필 직전인 2022년 초, 지명관(池明觀) 선생님의 부고가 전해졌다. 나는 1980년 대학에 진학하여, 거기서 재일한국학생동맹(이하, 한학동)을 만났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미 학생운동이 쇠퇴해 ‘과격파’라고 야유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 또한 한학동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문턱이 높은 일이었다. 정치나 사회운동과 인연이 없었던 당시의 내게 있어, 잡지 『세카이(世界)』에 실린 TK생의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알려주는 첫 창구였다. 우리 동포와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이어주신 지명관 선생님께 감사와 애도를 표하고 싶다.

한학동에 참가하는 동포학생은, 같은 동포학생들 중에서도 소수였는데, 모두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일본사회 속에서 자신의 루트(역주: 재일코리아인 사회에서 출신을 일컬어 사용하는 말)를 부정적으로 느끼며 생활하

고 있었다. 한학동에서는 일본의 공교육이 자세히 가르쳐주지 못하던 식민지 지배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도항(渡航) 및 분단의 역사,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부했다. 특히 한국현대사에 중점을 두고, 한국의 민주화와 조국 통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1980년의 광주민주항쟁지원연대 및 김대중 씨에 대한 사형저지운동 등은 동포들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들까지도 지원의 손길을 보냈다. 이번에 소개하는 ‘히가시쿠조 마당(東九条マダン)’의 형성에 초창기부터 참여한 사람들 또한, 적지 않게 광주민주항쟁과 김대중 씨 사형저지를 위한 지원연대투쟁을 경험했다.

2. 히가시쿠조 마을

일본 최대의 재일동포 집주지역은 오사카의 이쿠노구(生野区)이다. 나도 이쿠노구 출신인데, 대학이 교토의 도시샤대학이었기 때문에 생활거점을 교토로 옮겼다.

세계 유수의 관광도시로 알려진 교토에는, ‘히가시쿠조’라는 지역이 교토역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히가시쿠조 지역은 JR교토역 남쪽으로 약 1.5 km, 가모가와(鴨川)강 서쪽으로 1.3km의 일대를 말한다. 히가시쿠조의 북쪽에는 ‘스진지구(崇仁地区)’라는 피차별부락이 있는데, 전전(戰前) 많은 동포들이 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해 왔다. 1920년대부터 코리안의 유입이 증가하였고, 이들은 섬유산업 등 교토의 전통산업에 종사했다. 1935~

1938년에는 히가시쿠조 주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토목공사 및 염색 하청업 등의 영세공장에 종사하였는데, 1935년 당시 재일코리안의 비율은 히가시쿠조 내 특정 지역에서만 30%가 넘었다(히가시쿠조 이와모토초(岩本町) 30.8%. 교토 시내 거주 조선출신자에 관한 조사로부터).

전전부터 이미 노동자 수가 증가해, 스진지구와 함께 히가시쿠조지구는 '불량주택지구'라고 불리는 열악한 환경이 되었고, 해방 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게 된 많은 동포들이 생활이 곤궁한 사람이 되어 교토역 남부의 암시장과 판자촌에 흘러 들어갔다. 일본이 전후 혼란기에서 부흥기로 이행하던 1955년, 히가시쿠조 지역의 복지시설 '희망의 집' 설립자인 프란시스코 A. 디프리 신부는 교토 남부에 밀집한 판자촌을 목격하고, "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 뒤, 1959년 방임 상태인 슬럼가 아이들을 판자로 만든 '희망의 집'에 모아 학습지원을 시작했다. 그 후로도 의료 및 저축공조회 등 자주적 사회복지사업을 일관되게 펼쳤다. 신부가 기독교 포교와는 선을 긋고 일관적으로 지역 사람들을 위해 공헌했기에 지역의 신뢰를 얻었다고 당시 관계자는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프리 신부의 의지를 이어받은 만티카 신부를 초대 원장으로 하여, 현재 내가 근무하는 '희망의 집 가톨릭 보육원'이 1967년 탄생했다.

당시 히가시쿠조에서 사는 사람 중 대다수는 폐품회수업체 말단이나 토목 인부, 일용 노동자 등의 저소득자였다.

1950년대 당시는 동포 남성들은 일자리가 없고, 일은 바타야(역주: 폐품회수업체 말단)뿐이었다. 하치조구치(八条口, 교토역 남쪽 입구)에 암시장이 서고,

물건 사려는 많은 사람들이 역 앞에 선 열차의 차창에서, 철교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 쌀을 던졌다. 때로는 쌀 봉지가 찢어져 선로의 쇠석 사이로 흩어지는 바람에, 자갈과 쌀이 섞인 것을 주워 와서 쌀을 골라내어 밥을 지었다(재일 코리안 1세의 증언으로부터).

빈곤과 차별이라는 엄혹한 상황에 놓여 있던 히가시쿠조 지역에서는, 밀집된 집에서 몇 번이나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었다. 이 사태는 1968년 당시 교토 시장이 “히가시쿠조 지역 주민들의 생활 실태는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적 인권과 더불어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히가시쿠조의 남쪽 끝에 있는 제방을 ‘불법 점거’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제방(堤防)’, ‘0번지’라고 차별적으로 불리던 재일코리안 집주지역도 있었는데, 이곳은 1980년대까지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많은 재일코리안들이 수해와 화재 위기에 처한 채로 살아왔다.

1970년대 히가시쿠조에는 복지지구로서 출장소가 설치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희망의 집’이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지역 내 재일코리안, 피차별부락 출신 청년들이 ‘히가시쿠조청년회’를 설립하고, 지역 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며 자기 자신의 해방을 위해 일어나 행정투쟁을 시작했다. 그들은 ‘제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부모들의 고생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며, 때로는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면서 동지의식을 고취시켰다. 히가시쿠조에 관련된 학생 활동가들과 만나 그들에게 반발하면서도 ‘사회주의’에 관해 배우고, 지역 내 상황을 분석해 나갔다.



〈사진 1〉 가모가와강 제방 위에 남북으로 약 500미터에 걸쳐 판잣집이 이어지는 통칭 ‘마쓰노키초 40번지’. 차별적으로 ‘제방’, ‘0번지’로 불렸다.

(1989년 5월 14일, 나카야마 가쓰히로中山和弘 씨 촬영. 이하 사진은 모두 나카야마 씨 촬영)

당시 히가시쿠조에는 ‘재일한국청년동맹’에 소속되어 한국의 민주화투쟁에 지원 및 연대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해방을 ‘민족’에 투영하는 재일동포청년들과, 차별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계급사관’을 갖고 슬럼해방투쟁에 투신하는 ‘히가시쿠조청년회’가 공존하고 있었다. 히가시쿠조에서는 재일코리아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힘들게 살고 있어서, ‘피차별부락’, ‘재일코리아’, ‘저소득층 일본인’이 생활하는 지역 자체가 교토 안에서 도 차별을 받았다.

1976년의 대화재로 121세대 307명이 피해를 입고 '1명이 사망'함에 따라, '히가시쿠조청년회' 청년들이 앞장서서 행정기관 측에 이재민 구제대책과 생활지원을 요구하여 쟁취했다. 그 후 청년들과 지역 유력자들 간의 대립이 계속되어 지역개선운동은 분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에는 히가시쿠조 지역 주민들이 단결하여 '히가시쿠조개선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역 문제를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89년 버블 시기부터는 히가시쿠조에 투기꾼들에 의한 의도적인지가 폭등이 몰아쳐, '히가시쿠조를 지키는 모임' 회원들이 몸을 바쳐, 퇴거당하게 된 주민들과 함께 투기꾼들에게 맞섰다. 히가시쿠조 지역 주민들의 운동도 '히가시쿠조개선대책위원회'의 재출발과 함께 활성화되었다. 주민들의 끈기 있는 투쟁 덕분에, 히가시쿠조 지역의 주택들이 개선되고 불량주택이 철거되었고, 공영주택이 증설된 현재로서는, 다문화공생사회를 목표로 지역·다문화교류네트워크촉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교회 관계자들의 현장연수를 시작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히가시쿠조 지역의 문제에 참여했는데, 그중에서도 노동, 생활, 육아를 꾸리는 거점으로서의 히가시쿠조를 선택해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히가시쿠조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많은 재일코리아인들이 다니고 있고, 코리아 루트를 가진 아이들에게 코리아 문화를 가르치는 민족교실도 있다. 1999년 국기국가법이 성립되어 일본 전국에서 히노마루, 기미가요가 강제된 시기에도 히가시쿠조의 초등학교에서는 국가 제창 시 많은 학생들이

기립하는 일이 없었다. 재일코리안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보호자와 학교 측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호자들과의 교섭 자리에서 교장이 “기미가요 제창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전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던 부의 역사도 학생들에게 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단지 주민들이 모두 재일코리안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진보적인 주민들과 보수적인 주민들 간의 갈등이 길게 이어졌다.

내가 근무하는 ‘희망의 집 가톨릭 보육원’은 1967년 설립 이래로 히가시쿠조의 역사와 함께 걸어왔다. 2022년 현재도 코리안 루트를 가진 원아들이 반수 가까이 있으며, 그 외에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루트의 원아들이 다니고 있다. 보육원에서는 일상 속에서 다문화화를 보육에 반영하는 다문화공생보육을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언어 인사말, 다문화 급식, 다양한 나라의 노래와 놀이 등이 외국 루트를 가진 봉사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의 목적은 어떤 루트이든, 발달에 차이가 있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되고 소중한 존재로서 길러지는 것에 있다. 같은 반에 다양한 루트를 가진 친구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이며, 모두가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서로 지탱해 주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에 이어지기를 바란다. 일본에서는 아직 ‘단일민족론’을 주장하는 독선적인 배외주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와 증오 범죄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규제할 수 있는 조례도 일부 있지만, 법적 규제와 함께 사람들의 의식 속에 ‘다문화 공생’이 뿌리내릴 필요가 있으며, 그를 위해서 유아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3. 히가시쿠조 마당의 탄생

히가시쿠조에서 한국의 민중문화를 계승하는 ‘한마당’이라는 문화패가 1986년에 결성되었다. 나는 한마당 결성 당시부터의 멤버이기도 하다. 한마당은 한국의 마당극 <돼지풀이> 공연을 계기로 탄생한 문화패다. 한국 민족민중문화운동 연구자이자 실천가이기도 한 양민기(梁民基) 선생님의 권유로, 코리안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한마당에 모여, <돼지풀이> 공연 후에도 일본의 사회문제를 주제로 마당극을 창작하고 표현해 왔다.

또한 한마당은 히가시쿠조에서 ‘말마당’, ‘소리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어와 민족악기 교실을 열고, 꾸준히 지역 안에서 민중문화활동을 이어왔다. 당시 오사카 이쿠노구에서는 재일코리안들이 주체가 되어 ‘이쿠노민중문화제’를 개최하면서, ‘한마당’에 코리안과 일본인이 공동 참여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시대를 앞서간 존재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교토에서도 민족 축제를’이라는 마음으로 ‘한마당’과 한국인 청년들이 참가를 호소하고, 여기에 히가시쿠조 지역 사람들과 외국인 교육을 추진 중인 교원들이 모여서, ‘히가시쿠조 마당’ 탄생의 구심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히가시쿠조에서의 개최는 쉽지 않았고, 지역 안에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장소를 찾기도 어려웠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 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지원을 받아, 중학교 문화제의 일환으로 ‘제1회 히가시쿠조 마당’을 개최할 수 있었다. 준비모임은 뜨거운 논의 속에서 히가시쿠조 마당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한국·조선인, 일본인을 위시한 모든 민족 사람들이 함께 주체적으로 축제에 참가하며, 이를 통해 각자의 자기 해방과 진정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2. 한반도에 루트를 가지고 일본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춤사위에 참여할 수 있는 세대교체의 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살아 있는 민족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3. 조선민족의 소원인 남북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생활의 장인 이 지역으로부터 화해와 통일로 이어지는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4. 히가시쿠조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사람과 사람이 진실로 교류할 수 있는 마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히가시쿠조 마당은 위의 취지문에 있듯이 ‘지역으로부터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만남의 장, 기쁨의 장’, ‘지역 밀착형 축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지향하며 개최되었는데, 준비 모임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중 하나는 축제의 주체 중에 ‘장애인’이 없으며, 단지 객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 ‘장애인’으로부터의 문제제기였다. 그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교류회를 준비 단계에서부터 갖고, 첫 회부터 ‘휠체어 체험 코너’를 기획했다. 휠체어는 이용자에게는 몸의 일부인데, 이용자의 시선에서 마을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코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들 스스로가 “재일 코리안이나 부락민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여 늘 마당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교류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한 해에 한 번뿐인 교류로는 상호 이해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일상 속에서 서로의 차별 문제에 관심을 가지
는 것을 과제로 삼아 마당을 매년 함께 만들고 있다. 2006년에는 지적장애,
다운증후군, 자폐증을 가진 개성 가득한 아이들이 자기 페이스대로 사
물놀이를 표현하는 ‘사물놀이 달걀’이라는 그룹이 탄생하여, 현재까지도
히가시쿠조 마당의 상징적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정말로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가, 준비 과정에 얼마나
많은 지역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가’라는 지역 안에서의 문제제기였다.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는데, 적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판매 부스
와 당일 참가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지역 중학교 취주악부의 참가가 첫
회부터 프로그램에 편성된 것과, 판매 부스 중에 코리안 음식이 많았기에,
첫 회부터 지역 내 많은 사람들이 히가시쿠조 마당에 방문해 주었다.

또한 지역 밀착의 첫걸음은 내가 근무하는 ‘희망의 집 가톨릭 보육원’의
기획이었다. 1회부터 4회까지의 실행위원장은 최충식(崔忠植) 보육원장으
로, 보육원이 실행위원회가 되어 원아, 직원, 보호자가 전면적으로 참가하
였고, 아이들은 대풍물 놀이(역주: 히가시쿠조 마당의 거대 사물놀이)와 퍼레이
드에 귀여운 저고리를 입고 소고를 두드리며 춤을 추었다. 보육원 출신 아
이들이 자라나서 히가시쿠조 마당에 참여하고, 지역 안에서 히가시쿠조
마당을 지탱해 왔다.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 내 자치연합회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 내 이벤트에 참가하는 등, 지역이 알아주는 축제가 되도록 노
력을 계속하고 있다.

1993년 제1회 히가시쿠조 마당에서는 보육원 원아들부터 재일코리안



〈사진 2〉 한때 일상적인 작업이었던 새끼 꼬기를 보여주는 1세대
(교토시립도카초등학교, 1994년 10월 30일)



〈사진 3〉 매회 100명 이상 참가하여 연주하는 풍물놀이
(교토시립산노초등학교, 2003년 11월 2일)

1세대까지 100여 명에 달하는 풍물패가 등장해, 개최를 위해 힘썼던 관계자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맞이했다. 히가시쿠조 마당이 시작된 당시에는 재일코리안 1세대들이 건재해서, 재일코리안 1세대들이 일본어를 배우는 ‘어머니 학교’에 참가하거나, 재일코리안 1세대로부터 계승되어온 ‘새끼 꼬기’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씨름이나 민속놀이(널뛰기, 제기차기)는 첫 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총련과 민단이라는 남북 코리아 조직이 있어도 평소 생활 속에 38선이 존재하지는 않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었던 2000년부터 매년 조선학교 학생들도 한국학원(현 교토국제학원) 학생들도 출연하고 있다.

4. 히가시쿠조 마당: 자신의 의사로 만들어내는 문화

히가시쿠조 마당은 코리안도 일본인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축제가긴 하지만, 소수 문화임을 염두에 두고 사회문제와 대면하는 축제로 존재하고 있다. 코리아 문화를 주축으로 풍물놀이, 사물놀이, 마당극을 대표적인 공연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일본 내 소수민족인 오키나와와 아이누의 공연이 여럿 소개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게스트들이 종종 방문하여 교류를 이어왔다. 주변 코너로는 재일 외국인 장애인에 의한 연금을 요구하는 재판, 교토코리안생활센터, 공립야간중학교, 한센병 문제, 간사이퀴어영화제(LGBTQ를 주제로 하는 영화제) 등 사회문제를 테마로 한 전시가 열린다. 히가시쿠조마당 실행위원회도 지역의 역사 등 매년 흥미로운 전시를 하며 자신들의 학습의 장으로 삼아왔다.

또한 히가시쿠조 마당에서는 주어진 문화뿐만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민중문화를 중요한 테마로 삼아왔다. 일본인과 코리안의 생활 속에서 서로의 교류를 길러낸 히가시쿠조에서, 입장과 배경 차이로 인해 막혀 있던 벽을 없애고, 상호 교류, 상호 이해, 상호 발견을 구현할 수 있는 축제를 지향해 왔다. 그 상징적인 공연이 ‘와다이코(和太鼓, 역사주: 일본 전통 북) 사물놀이’이다. 4회 때까지는 각각의 단독공연만 열렸는데, 와다이코 사물놀이는 서로의 소리가 부딪히고, 받아들이며, 차이가 만들어내는 화학반응을 멋지게 표현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양민기 선생님에게서 이어진 마당극에서는 창작 각본 속에 그 시대를 반영한다.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가 절정에 달했던 2010년, 히가시쿠조 지



〈사진 4〉 축제 장소인 초등·중학교는 미술반이 제작한 장식품으로 다채롭게 장식된다.
(교토시립도카초등학교에서, 1994년 10월 30일)

역에 대해 ‘조선 나가라’, ‘조선인은 바퀴벌레’라고 욕설로 매도하는 데모대가 나타나 히가시쿠조 마을을 유린했다. 히가시쿠조 마당은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행사가 아니지만, 차별에 저항하는 문화 표현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2014년 <그날이 오면>이라는 마당극에서 일본의 폐쇄적인 상황을 풍자와 웃음으로 날려보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히가시쿠조 마당에 대해서도 헤이트 단체가 방해하러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무국은 상당한 긴장상태로 경비를 서고, 마당극 속의 표현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등, 마당 자체의 존재의의를 묻게 된 해이기도 했다.

마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상근자들이 아니어서 모금 활동과 교토시 보조금으로 자금을 충당하며 거의 무보수로 30년간 지속해 왔다. 마당의 운영, 프로그램 검토, 촬영, 기록, 홍보, 행정 및 지역과의 교섭 등, 사무국 멤버들이 각자의 일과 병행하여 거의 1년동안의 시간을 들여 축제 준비를 한



〈사진 5〉 히가시쿠조 마당의 이념을 나타내는
와다이코와 사물놀이 공연
(교토시립도카초등학교, 2002년 11월 3일)



〈사진 6〉 마당극 ‘그날이 오면 할망 2014’
(교토시립산노초등학교, 2014년 11월 2일)

다. 또 축제 당일 장식은 모두 미술반의 수작업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붓을 들고 커다란 현수막과 농기에 그림을 그리고, 회장을 장식한다. 한지아트, 탈 제작, 민속놀이, 민족의상 시착 체험 등의 당일 코너도 충실하게 만든다. 당일 참가하는 아이들의 의상은 마당에서 민족의상을 연구하는 멤버들의 수제작이다. 마당은 연기를 못해도 어느 부분에서부터라도 참가할 수 있어, 폭이 넓고 속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마당을 만드는 정열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연 1회 있는 축제에 어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써서 모이는 것일까? 마당에는 합리적 설명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매력이 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을 탈피해, 돈을 위해서도 권위를 위해서도 아닌,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향과 같은 축제를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말함으로써, 노동이 기쁨이 되는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축제가 가진 생존으로의 근원적 희구인 것일까? 히가시쿠조 마당 보고 서에는 언제나 ‘즐겁다’는 말이 등장한다.

“손님들도 출연자들도 히가시쿠조 마당에 모인 사람 모두의 웃는 얼굴이 눈부셨다. 참가자 모두가 함께 웃고, 춤추고, 즐길 수 있는 히가시쿠조 마당에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일본에서 한국·조선 루트를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는 기회가 지금껏 별로 없었다”, “와다이코 사물놀이가 시작되었다. 나는 이 기분 좋은 리듬이 너무나도 좋다. 한반도에 루트가 없더라도 사물놀이가 장단에 영혼이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역사나 정치에 싫증이 나서 일본인이라는 것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사물놀이와 공명하는 와다이코 소리에 몇 번이나 구원받았다.” <히가시쿠조 마당 감상 발췌>

5. 코로나 시국 속의 시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감염 확산으로 인해 히가시쿠조 마당도 2년간 통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했다. 교류가 가장 중요한 테마인 마당에 있어, 밀집 상태는 피할 수 없다. 마당이 지역에 정착해 가면서, 가을이 되면 마당이 늘 개최되는 것을 기대해 왔던 사람들에게 코로나 시국은 인내의 기간이었다. “마당은 반드시 거기에 있는 등대의 불빛이다”라고 말했

던 참가자가 있다. 마당의 불빛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의논하여, 2020년 마당 뮤직 비디오 제작을 위해 분투했다. 히가시쿠조 마당의 완전한 오리지널 창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래와 연주, 작사와 작곡, 출연, 촬영, 수록에 참여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제방으로 불리던 지역에 세워진 공영주택 주민들에게 마당 풍물패가 현지에서 풍물을 공연하는 출장 마당도 이루어졌다. 마당극도 아이들의 의욕에 힘입어 온라인 연습과 수록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시도에 의해 마당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보전하고 연결을 유지한 일은 새삼 마당의 저력을 실감하게 해준다. 2021년에는 무관객으로 마당의 대표 공연들을 수록하여 송출하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원래의 마당을 다시 열기로 모두와 확인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모이기’와 ‘접촉하기’가 금지된 코로나 시국 2년 받은 마당의 존재 의의를 시험받는 시련의 시기이며 중대 국면이었다.

6. 지역으로부터의 도전, 세대교체

현재 재일코리안의 재류외국인으로서의 인구수는 중국인보다 적은 약 54만 명(2020년 법무성 통계)이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를 가진 특별영주권자는 전체 외국인의 10%로서 기능실습비자를 가진 외국인과의 비슷한 비율이다. 이는 일본 국적 코리안의 증가 때문으로 여겨진다. 재일코리안의 세대교체는 마당에서도 나타나, 일본인과 한국인 간에 태어난 아이는 대부분이 일본 국적을 선택하여 한반도와의 연결도 멀어져 가는 실정



〈사진 7〉 제1회 히가시쿠조 마당의 마지막을 장식한 뒤풀이
(교토시립도카중학교에서, 1993년 10월 9일)

이다. 히가시쿠조 마당이 탄생했던 30년 전에는 재일코리안 1세, 2세의 억압된 민족으로서의 해방이 큰 원동력 중 하나였는데, 현재는 일본의 다문화 공생사회의 일원으로서 루트나 사회적 입장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본연의 자신을 누구에게도 부정당하지 않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축제가 되었다.

히가시쿠조 마당에 모이는 스태프는 약 200여 명으로, 당일 참가자는 거의 5,000명을 넘는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역사가 있고 참가하는 이유가 있다. 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대변할 수는 없다. 단지 히가시쿠조 마당이 가진 가능성은 앞으로도 한 지역에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으로서, 빛바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책상 위의 배움이 아닌, 살아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마주하고, 부딪히고, 서로 이해하는 장소인 한,

거기에는 반드시 재일코리안의 역사와 한반도와의 연결이 존재하며, 부락 차별 및 장애인 차별과도 대면할 수 있는 장소로서 계속 존재할 것이다.

마당은 '즐거운' 장소임이 전제로 열려 있기에 사람들이 모인다. 모인 사람들이 마당에서 느낀 점을 자신의 삶의 방식에 반영한다면, 사회 속에 작은 파도가 생겨나고, 그것이 확실하게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이어질 것이다. 히가시쿠조 마당에는 조직론이 없고, 자연발생적인 모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인 관심사로 모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있어 한반도의 문화는 매력적이며 자기 해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의사로 참가하고, 오든 오지 않든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개방적으로 느껴진다.

히가시쿠조가 다문화 공생 지역이 되려는 흐름과, 마당이 생생한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과 연결되는 축제라는 점은 일심동체이다. 히가시쿠조 마당이 차별과 대면하는 축제가 아니라 하루뿐인 다문화 페스티벌이었다면 어디서 개최하든 괜찮았을 것이다. 일부러 히가시쿠조라는 지역을 고집하는 이유는 피차별 역사와 함께하며 거기로부터 동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보는 축제이기를 바라는 초창기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축제로부터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도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히가시쿠조 마당이라는 축제 자체가, 사상이나 정치활동이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 문화를 통해 공명하는 민중문화의 한 형태인 것이다. 세대교체와 다양한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히가시쿠조 마당은 올해로 30회째를 맞이한다. ~~다~~